

■ 2016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 지원심의 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6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 지원심의
- 회의일시 : 2016. 12. 13(화)
- 회의장소 :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

2016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의 심의는 114명(시·시조 43명, 소설 39명, 아동문학 32명)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작가의 창작역량과 작품의 우수성, 지속적인 확산 가능성, 기대성과를 중심으로 공정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.

각 장르별 심의 대상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하였고 세부 논의에 있어서는 시조, 동화, 동시 분야에도 일정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.

‘유망작가지원’이라는 사업 목적에 비추어 가급적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와 지역 작가 중에서 문학적 성취가 높은 작가에 주목하였으며, 최근 3년 간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이외에도 각종 주요 문학상에서의 수상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공공재원의 지원 기회가 가급적 형평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.

심의 결과 소설 8명, 시 6명, 시조 2명, 아동문학 4명으로 모두 20명의 작가에게 지원을 결정하였다. 최종 결과를 놓고 볼 때, 각 장르별로 다양한 경향들과 연령별 배려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앞으로 이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열악한 문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. 아울러 창작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그 동안 문학 지원 사업(집필공간, 국제레지던스 등)에 참가할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2016년도 유망작가지원사업 지원심의위원 일동